

종책, 재교육 (설문조사) 의견청취 지역단 순회



● 일정 : 불기2566(2022)년 7월~8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정책, 재교육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단 순회

목 차

	쪽수
• 지역단 순회 일정표 -----	5
• 포교사단장 인사말 -----	6

설문조사 재교육

1. 포교사 재교육 관련 설문조사 검토 -----	8
2. 설문지 조사 분석보고 -----	21
3. 설문지 집계결과 종합평가 및 재교육안 -----	37
첨부. 포교사단 민간인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에 관한 법률적 검토서 -----	44

정책 검토서

1. 포교사단 정책기조 및 과제 중 포교사단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서 ---	47
1-1. 제8대 포교원 정책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2022.2.16) -----	55
1-2. 포교원 정책 기조 및 과제와 포교사단 관련 검토표 (주제별 정리) -	80
• 포교사단 / 지역단 주소, 전화번호 -----	84

정책, 재교육(설문조사)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단 순회 일정표

지 역 단	일 시	장 소
울 산	7. 1(금) 19:00	지역단 사무실
강 원	7. 2(토) 13:00	오대산 월정사
대 구	7. 8(금) 19:00	대구불교회관
광주전남	7. 9(토) 11:00	무안 달산피크닉공원
경 북	7. 11(월) 19:00	지역단 사무실
부 산	7. 14(목) 19:00	지역단 사무실
대전충남	7. 17(일) 14:00	공주 마곡사
충 북	7. 18(월) 19:00	지역단 사무실
인천경기	7. 20(수) 19:00	지역단 사무실
서 울	7. 27(수) 19:00	지역단 사무실
전 북	7. 30(토) 10:30	고창 선운사
경 남	7. 31(일) 10:00	지역단 사무실
제 주	8. 6(토) 15:00	지역단 사무실

종책, 재교육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단 순회 인사글

포교사단 단장 김영석입니다.

예를 갖춰 인사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때는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 일상사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식물들은 장마 덕에 생육이 발달합니다. 불순한 기후를 잘 살피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종책, 재교육 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단 순회'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종책, 재교육 의견 청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13개 지역단 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7월 1일 울산지역단 방문을 시작으로 8월 6일 제주지역단 순회 일정까지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됩니다. 순회 기간은 짧지만 지역단에서의 의견청취 시간은 최대한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인 '종책, 재교육 의견 청취'는 금년 2월16일 발표된 '포교원의 종책 발표 내용 중 포교사단 관련 내용'과 우리 내부적으로 상반기에 진행한 '설문 조사와 재교육'에 관한 건으로서 지역단 운영위원님들과 전직 단장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포교원은 현재 시대의 특징인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인구의 감소 특히 신도인구의 감소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불교 수행전통을 사찰 중심의 신행으로 대중수행 정진'을 기조로 한 '3대기조와 10대과제'를 대책방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포교사단 22년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사에서, 한국불교사에서 재가자 전문포교조직을 창단하고 포교활동하고 있음은 종단의 배려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재는 종단의 소중한 자산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단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우리의 기량을 1인1전문분야 전법가로 더욱 성장시켜 사찰 내 신행활동과 사회 계층포교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사회제도 개선과 재교육에 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 2월 중에 발표된 포교원의 총책 취지를 잘 이해하여 포교사단 관련 총책에 대한 의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즉, '탈종교화에 따른 포교지형의 변화와 포교사단의 활동성과'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단은 금번 전국의 각 지역단 순회를 통하여 포교원 총책과 포교사단 재교육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종단의 발전과 안녕, 포교사단의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사단장 범일 김영석 합장

‘포교사 재교육 관련 설문조사’ 검토

1. 분석 목적

재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와 방향성 확보

2. 분석 내용

분야별 수준과 요구사항

3. 설문 자료 기본집계

1) 응답률 : $2,709/4,485 \times 100 = 60.4\%$

2) 조건별 응답률 : 단위 %, 명

① 지역단별 응답률

항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강원
비율	50.3	67.9	61.1	57.2	46.5	15.0	68.9
응답	280	433	349	127	140	25	204
전체	557	638	571	222	301	167	296

항목	충북	인천	경남	울산	제주	경북	합계
비율	56.0	67.1	68.1	88.4	74.3	59.0	60.4
응답	135	314	218	122	136	226	2709
전체	241	468	320	138	183	383	4485

② 분야별 응답률

항목	계층	어청	문화	지역	염불	홍보	통일	사무	합계
비율	58.6	61.3	66.1	48.5	72.2	40.0	64.8	19.2	
응답	842	245	502	517	294	46	70	37	
전체	1437	400	760	1065	407	115	108	193	

③ 연령별 응답률

항목	50대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비율	57.0	63.5	57.7	48.4	
응답	69	848	1376	311	
전체	121	1336	2386	642	

④ 경력별 응답

항목	2년 이내	4년 이내	6년 이내	8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합계
비율	53.4	68.4	67.8	43.0	67.2	53.8	
응답	463	469	404	308	320	616	
전체	867	686	596	716	476	1144	

4. 설문 자료 분야별 집계

1) 수행분야

■ 수행포교 정진력1 : 1번-2502명

항목	성실히	가끔	관심	않는다	모르겠다
1번	50.6/1266	37.8/946	9.2/229	2.0/49	0.5/12

■ 수행포교 정진력2 정진력계량화 : 8번-2495명, 9번2487명, 11번-2161명, 12번-2088명

8번	1회30분	1회50분	1회90분	1회 90분 이상
	36.7/915	33.8/844	10.7/266	10.8/270
기타	32/30분	34/90분이상	124/안함	
9번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18.1/449	12.3/307	16.1/401	35.5/884
기타	227/주4회이상	41/주1회	128/안함	
11번	년1회	년2회	년3회	년 4회 이상
	23.8/515	25.3/546	8.3/179	21.9/474
기타	2/연2회	42/연4회이상	403/하지않음	
12번	2일	3일	5일	7일
	28.2/588	19.3/402	6.8/143	12.1/252
기타	81/8일 이상	47/100일	406/미기재	

■ 수행내용 : 2번-3585명, 3번-3358명, 4번-3137명, 7번-3028명

항목	구분	간화선	명상	기도	기타/평균
2-1번	이전	5.9/212	10.4/374	77.5/2778	9.09년/1544명
2-2번	이후	6.8/321	14.3/680	74.8/3557	6.39년/1811명
3번	현재까지	6.1/206	12.3/412	77.6/2603	9.11년/1370명
4번	앞으로	18.1/568	29.1/911	50.4/1582	6.87년/879명

■ 수행분야 팀 포교 활동 반영 : 13번-2386명

항목	하고있다	팀활동상이	메뉴얼부재	준비부족	기타	기타
13번	46.8/1116	18.0/429	12.6/300	14.9/355	64/안함	122/미기재

■ 수행포교의 분야별 포교활동 여부 : 14번-2012명, 18번-2140명

항목	군	교정	어청	사회	문화	지역	염불
14번	18.7/377	11.0/222	9.8/197	15.3/307	6.4/128	7.3/147	13.7/275
조사	377/곤란	222/곤란	197/곤란	307/곤란	128/곤란	147/곤란	275/곤란
18번	매우	그렇다	아니다	전혀아님	필요/기타	없음/기타	
	19.7/422	68.4/1464	6.4/137	1.8/39	8명	16명	

■ 수행포교 유형1 : 15번-2175명

문항	간화선	명상	사경	염불
15번	8.6%/187명	35.4%/771명	22.7/493	1.56/34명
기타	198/염불 등	32/교리	6/명상	488/미기재

■ 수행포교 유형2 : 16번-1813명, 19번-1292명

16번	자비명상	위빠사나	사마타	MBSR	MSC	하트스마일
	41.6/755	24.3/440	8.4/153	2.2/39	0.9/16	0.9/17
기타	8/참선	15/혼합	10/생활명상	360/안함		
19번	자비명상	위빠사나	사마타	MBSR	MSC	하트스마일
	25.5/330	12.4/160	5.0/65	1.1/14	1.0/13	0.4/5
기타	4/참선	2/명상마을	4/생활명상	1/혼합	694/미기재	

■ 수행포교 전문성 : 20번-1283명, 21번-1282명, 22번-1136명

20번	30분이내	50분이내	90분이내	90분이상	미기재
	44.3%/569명	20.0/257명	4.1/52명	2.4/31명	
기타	21	1		3	349
21번	정기적	비정기적	사찰, 행사	정책지원	
	11.5%/147명	32.1/412	27.7/355	1.3/17	
기타			13		338
22번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이상	
	21.9%/249명	12.2/139	9.2/105	15.0/170	
기타	3			16	454

■ 수행포교 확장성 : 24번-1228명

항목	불자	경찰군인	학생	교정교화대상자	기타
24번	39.4%/484명	13.8/169	7.1/87	4.7/58	
기타	4/경찰군인	1/학생	113/포교활동 중	17/주변인물	295/미기재
	4	1	113	17	295

■ 수행포교 교육 참가의사 : 26번-2152명, 27번-2039명, 28번-2090명

26번	온라인 주1회	온라인 월1회	온라인 월2회	대면 7일	미기재
	46.1%/993명	32.7/704	12.5/270		
기타	16/상시참여	28/상황따라			141
27번	대면 주1회	대면 월1회	대면 월2회		
	25.6%/522명	48.9/990	13.1/267		
기타	8/상시참여	55/상황따라			197
28번	단기 1박	집중 2박	집중3박	집중7일	
	53.3%/1115명	13.1/267	6.5/135	5.3/111	

■ 수행포교 자격증 : 30번-125명

지도관련	케어관련
91	11

■ 수행분야 간화선 수학처 : 5번-2134명

사찰	불교대학	미디어	포교사단	포교원	독학	해당없음	합계
395	32	28	5	4	10	1613	474

■ 수행분야 명상 수학처 : 6번-2037명

담마/①	목우/②	보리수/③	불교상담/④	싸띠/⑤	성전사/⑥	붓다/⑦
34	38	37	87	21	9	41

참불/⑧	한국명상/⑨	한국M/⑩	하트스/⑪	호두마/⑫	해당없/⑬	합계
92	33	19	4	23	1146	438명

항목	사찰	불교대학	미디어	포교사단	독학	합계
기타/⑭	235	27	31	2	16	311명

■ 자유발언 : 기재자-456명

포교원교육	통일의례	참불위탁	자격증제도	수행반영	설법메뉴얼	불교생활
1	1	2	3	1	1	1
불교상담위탁	불교방송	문화메뉴얼	분야메뉴얼	보살행	명상지도자	정보부족
3	2	2	1	1	2	13
디대교육	동영상	군포메뉴얼	간화선교육	참선지도	MBSR	참가
3	1	1	39	1	1	268
104/기타						

2) 불교문화 해설분야 : 응답자-2709명

■ 검토 기준점1 : 1~22번 문항 평균율-2456명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한다	매우잘한다	합계
응답자	215명	794명	978명	386명	83명	2456명
응답율	8.77%	32.37%	39.78%	15.7%	3.39%	100%

■ 검토 기준점3 : 복합주제-일반문항 평균율

문항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한다	매우잘한다	비고
1번	6.6%/164명	25.7/638	49.8/1234	14.6/362	3.3/82	
3번	5.7/142	30.7/761	46.3/1146	14.6/361	2.6/65	
4번	5.7/141	28.9/710	46.4/1137	16.1/396	2.8/69	
5번	4.8/120	25.2/623	47.0/1165	19.5/484	3.4/85	
6번	8.1/200	36.2/893	40.3/993	12.8/316	2.6/63	
8번	4.9/121	26.4/653	46.7/1157	18.5/459	3.5/86	
10번	4.5/111	26.4/652	47.3/1166	18.5/456	3.3/81	
12번	7.1/176	37.3/922	40.3/995	12.4/306	2.9/71	
13번	9.6/237	42.4/1044	34.4/846	11.1/274	2.5/61	
14번	6.4/155	29.4/711	42.6/1031	18.0/435	3.6/87	
16번	14.2/347	42.5/1038	30.0/733	10.3/252	3.0/73	
평균	7.1/174	31.9/786	42.8/1054	15.1/348	3.0/75	

■ 검토 기준점4 : 복합주제-심화문항 평균율

문항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한다	매우잘한다	비고
15번	13.2/322	44.4/1081	32.0/778	8.5/208	1.9/46	
17번	17.3/425	44.6/1094	27.7/678	8.1/198	2.3/56	
18번	18.0/440	44.5/1090	29.5/721	6.9/169	1.1/27	
19번	17.9/435	45.5/1104	29.7/721	5.9/144	0.9/23	
20번	14.8/359	41.7/1011	32.7/792	9.0/218	1.8/44	
22번	15.4/372	42.9/1039	31.6/766	8.1/197	2.0/49	
평균	16.1/392	43.9/1069	30.5/742	7.7/189	1.6/41	230명

■ 불교문화분야 포교력 : 23, 24, 25번-2196~2297명

문항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한다	매우잘한다	비고
24번	13.0/289	32.9/731	39.9/887	11.6/258	2.6/57	
23번	②+④+⑤ 30.7/674	53.5/1174		15.8/348		

■ 불교문화분야의 포교활동 반영도 : 25번-2297명

팀 성격	팀 성격 상	팀 준비형편	자신의 준비상태	스토리텔링난항	팀 시도부재
	19.1/438	12.4/284	22.8/524	21.5/494	18.1/416
기타	지식부족	여러 형편상	미기재		
	21	31	89		

■ 불교문화포교 교육 참가의사1 : 26번-2407명

문항	적극참여	상황보고 참여	가산점 참여	내용보고 참여
26번	30.1/724	52.1/1253	2.3/55	11.3/273

■ 불교문화포교 교육 참가의사2 : 27~29번-2330~2159명

27번	온라인 주1회	온라인 월1회	온라인 월2회	
	33.4/778	43.6/1015	16.7/389	
기타	5/상시참여	26/상황따라	30/불참	87/미기재
28번	대면 주1회	대면 월1회	대면 월2회	
	22.7/509	51.7/1156	15.5/346	
기타	8/상시참여	32/상황따라	57/불참	130/미기재
29번	단기집중 1박	단기집중 2박	반대	
	52.3/1130	31.0/670		

■ 불교문화분야 전문자격증 현황 : 30번-1416명

관광해설	사찰해설	기타 자격	전문포교사	비고
10	35	12	10/응답자기준	57/전포별도

■ 불교문화분야 자유발언 : 기재자-343명

참가	자격증제도화	메뉴얼	동영상	기타
224	21	23	7	58

3) 의식집전 분야 - 응답자 : 2709명

■ 의식집전 교육 현황 : 1번-2462명, 16번-2385명, 23번-2129명

1번	개인별	소속팀	염불팀	지역단	사찰	기타
	12.4/306	26.6/649		28.6/704	18.6/459	
기타	11/개인	5/불교대학	6/사찰관련	4/포교사단	145/없음	166/미기재
16번	개인별	소속팀	염불팀	지역단	사찰	받지못함
	11.7/278	22.7/541	16.6/396	19.2/457	15.9/380	14.0/333
23번	개인별	소속팀	염불팀	지역단	사찰	기타
	11.0/235	22.0/469	17.3/368	18.0/383	기타	기타
기타	49/사찰관련	5/불교대학	5/미디어	1/소속팀	21/없음	78/미기재

■ 의식집전 집전력 : 2-2424명, 12-2216명, 21-2310명, 26-2130명, 27번-2292명, 3번-1929, 7번-1520명

항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한다	매우잘한다
2번	14.6/354	28.3/686	33.9/821	17.8/431	5.4/132
12번	8.2/181	23.3/516	50.8/1126	14.3/316	3.5/77
21번	11.0/254	23.6/545	38.8/896	20.0/463	6.6/152
26번	34.7/739	34.1/726	21.7/462	6.9/147	2.6/56
27번	3.0/69	8.9/205	26.7/613	50.4/1155	10.9/250
3번	2회/1년	4회/1년	6회/1년	7회이상/1년	
	22.4/432	10.5/202	6.0/116	17.7/342	
기타	5/2회	99/상시	13/상황	275/안함	445/미기재
7회	1~2회비/1년	3~4회비/1년	1회/월	1회/주	
	17.1/260	6.4/97	12.5/190	6.3/95	
기타	17/상시	4/정기적	30/비정기적	289/안함	538/미기재

■ 의식집전 포교력 : 4-1966명, 5-2122명, 8-2020명, 9-1467명, 14-1595명, 15번-1434명

4번	팀-한다	개인-한다	기타	기타
	44.2/869	30.3/595	29/팀한다	473/안한다
5번	착용한다	착용안한다	기타	기타
	61.4/1303	27.1/576	20/한다	223/안한다

8번	포교사 1회/1년		포교사 2회/1년		안한다				
	12.1/245		17.0/343		44.4/896				
기타	122/상시		29/상황		86/안함		299/미기재		
9번	포교사 3일		포교사 5일		포교사 7일				
	29.3/430		2.6/38		4.8/71				
기타	1일	3일	5일	30일	50일	100일	상시	상황	안함
	74	12	1	25	7	3	17	9	780
13번	사찰 포회		포교팀		포교 정기모임		상황		
	28.8/531		31.5/581		9.7/179		14.0/258		
기타	2/사찰 포회	5/포교팀	3/스님	4/개별	55/없음	189/미기재			
14번	10명이내/포		20명이내/포		30명이내/포		40명이내/포		40명이상/포
	44.3/707		27.1/432		13.1/209		5.9/94		9.6/153
15번	10명이내/일		20명이내/일		30명이내/일		40명이내/일		40명이상/일
	45.7/655		26.8/385		13.0/187		5.4/78		9.0/129

■ 의식집전 염불 수행력 : 17-2424명, 18-1900명, 19-1772명

17번	자택	사찰관련	직장	비특정공간		
	38.6/935	46.4/1124	2.4/57	9.4/227		
기타	4/본단	2/자택	1/직장	1/처처	10/안함	63/미기재
18번	년1회	년2회	년3회			기타
	18.6/354	12.5/238	16.3/309			458/미기재
기타	343/상시	42/상황	24/10일	84/30일	4/100일	44/안함
19번	10일이내	30일이내	100일이내	기타	기타	기타
	35.5/629	9.2/163	13.5/240	149/상시	31/안함	401/미기재
기타	72/1일	18/7일	12/30일	14/50일	19/100일	149/상황

■ 의식집전 '불자생활의례' 활용도 : 23-2129명, 24-2055명, 25-1489명

23번	포교사	염불팀	지역단	소속팀	받지못함	
	11.0/235	17.3/368	18.0/383	22.0/469	24.1/514	
기타	49/사찰관련	5/불교대학	5/미디어	1/1포교원(팀)	21/없음	78/미기재

24번	매우미흡	미흡	보통	잘함	매우 잘함	
	20.5/421	34.3/705	35.2/724	7.8/161	2.1/44	
25번	불자	대중	포교사			
	51.6/769	25.3/377	17.9/266			
기타	3/불자	1/대중	12/지인	11/포교대상	8/없음	42/미기재

■ 의식집전 교육 참가의사 : 28-2130명, 29-2288명, 30-2292명

28번	적극참여	상황참여	가산시참여	검토후참여
	25.9/551	64.4/1372	1.8/38	12.0/255
기타	5/상황	20/없음	47/미기재	
29번	비대면 주1회	비대면 월1회	비대면 월2회	
	28.3/647	46.4/1062	12.5/285	
기타	29/참석	13/상황	32/불참	127/미기재
30번	대면 주1회	대면 월1회	대면 월2회	
	17.9/411	50.0/1146	10.5/240	
기타	28/참석	26/상황	60/불참	166/미기재

■ 의식집전분야 자유발언 : 기재자-298명

경연	단복	동영상	메뉴얼	불교연계	불교생활	설법기회
1	3	1	3	1	10	1
요령사용	자격증제도	집전기회	참가	통일의례	포교원교육	한글의례집
1	4	21	154	20	1	2
66/기타						

4) 설법분야 - 응답자 2709명

■ 설법분야 경험관련 : 1번-2204명, 2번-1565명

1번	주1회	월1회	월2회	몇번	비고
	3.5/77	14.6/321	3.4/75	28.7/633	1106명
2번	15분이내	30분이내	50분이내		

	36.8/576	30.0/469	8.9/140		1185명
기타	8/10분 이내	6/50분 이내	5/1시간 이상	78/없음	283/미기재

■ 설법분야 포교력 : 3번-1556명, 11번-1339명

3번	포교현장	교육기관	사찰	기타	기타	기타
	50.9/792	2.9/45	17.7/275			
기타	16/개인	15/사찰관련	10/상황따라	27/팀활동	65/없음	311/미기재
11번	설문조사	설문확인	구두의견수렴	개인적확인	확인안함	
	5.5/73	4.4/59	30.9/414	14.8/198	44.4/595	

■ 설법분야 자료 공유성 : 5번-1527명, 9번-1443명, 10번-1323명

5번	기존+추가	기존자료	팀제공	타포교사	기타	기타
	50.3/768	18.9/289	6.9/106	3.2/49	36/경험무	144/미기재
기타	12/경전	7/기존자료	4/법문	14/인터넷	8/상황	3/안함
9번	기존자료	대상맞춤	인터넷활용	무자료설법	기타	
	24.5/353	31.2/450	10.2/147	18.6/269		
기타	3/제작	1/서적	2/상황	39/안만듬	174/미기재	
10번	공유가능	공유불가	권한 필요			
	75.5/1026	6.9/92	0.9/13			
기타	15/공유	4/상황	28/불가	144/미기재		

■ 설법분야 팀웍 : 12번-1302명

12번	설법 시	몇 번에 한번	가끔	없다
	12.4/162	21.0/273	6.7/87	38.6/502
기타	10/실시	3/비정기적	61/안함	204/미기재

■ 설법분야 교육 참가의사 : 13번-1898명, 14번-1885명, 15번-1791명

13번	적극참여	상황참여	가산시참여	검토후참여
	23.8/452	57.5/1097	1.2/23	13.1/250
기타	3/참여	4/상황	8/불가	64/미기재

14번	비주1회	비월1회	비월2회	기타
	23.6/445	54.3/1023	12.1/228	분기별 등
기타	33/참여	6/상황	28/불참	122/미기재
15번	대주1회	대월1회	대월2회	기타
	16.4/294	57.6/1032	11.8/211	분기별 등
기타	28/참여	20/상황	50/불참	158/미기재

■ 설법분야 자유발언 : 기재자-367명

참여	설법메뉴얼	설법정보부족	설법스님반대	설법기회없음
124	49	1	4	13

설문지 조사 분석 보고

■ 응답자의 조건별 응답률에 대한 분석

1) 지역단별응답률은 최고 울산88.4%, 최저 전북15.0%이며, 평균 60.4% 미만 지역단은 서울 50.3%, 대전 57.2%, 광주 46.5%, 전북 15.0%, 충북 56.0%, 경북59.0%이나 응답률에 따른 특이사항이 별도로 없는바, 이는 지역적 특성보다는

2) 분야별 응답률은 문화 염불 통일 분야가 높으며 홍보 사무분야는 저조함

3) 연령별 응답률은 50대가 높다

4) 경력별 응답률은 6년 이내 경력자 응답률이 높았으나 8년 이내는 저조하고 8년 이상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갱신율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번 2년 이내 경력자의 응답률이 낮은 현상은 자유발언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듯이 코로나로 인한 활동의 정지 영향이 있다고 하겠다.

1), 2), 3), 4) ▶ 경력별 응답률을 놓고 판단하면

1) '2년 이내' 경력자의 응답률 저조상황은 포교 활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2) '6년 이내' 경력자의 응답률은 포교사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재교육 방안은 포교 활동과 연관된 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함.

분야별 검토 내용

■ 수행분야

1. 정진력

1) 1번 응답자 2490명 중 1266명이 성실하게 정진수행하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1) ▶ 이는 8번 항목 '1회 50분에서 90분 이상까지' 인원이 1380명, 9번 항목 '주2~4회' 수행 응답자가 1592명, 11번 항목 년2회에서 4회까지 인원이 1199명에서 추가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9번 항목의 응답자가 1번 응답자보다 많이 나온 것은 사찰 법회 참석횟수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수행내용

1) 응답자 상당수 77% 내외는 염불 등 기도 중심의 수행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이사항은 앞으로의 수행분야에 대해서는 좌선 분야가 기존18%에서 47%로 상향응답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불 등의 기도 중심 수행은 응답률이 50.4%로 과반의 포교사가 선호하는 수행분야로 파악되어진다.

2) 2번~4번 응답자가 3585~3137명 중복체크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포교사 이전 이후 대비하여 수행정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3364명에서 4558명으로 1194명 증가하였다. 수행정진을 일상사로 실천하고 있음으로 파악되어진다.

1),2) ▶ ① 과반 이상의 포교사가 수행하는 염불 등의 기도 수행은 대다수 불자가 선호하는 수행방법이기도 하는바 이를 실행으로서 포교활동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좌선 수행은 간화선이 206명에서 568명으로 명상이 412명에서 911명으로 파악되어졌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포교 콘텐츠

1) 수행을 포교활동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항목13번의 1116명, 15번의 1721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하지만 수행을 포교활동의 다양한 내용으로의 콘텐츠로 생성하는 수준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수행을 포교활동에 반영 하는가?라는 질문 항목 14번에서 군포교, 교정교화, 어청, 불교문화, 염불 분야 1199명이 어렵다고 응답을 했다.

또한 포교활동에 반영하는 수행유형을 설문하는 항목 15번에서 간화선 사경 염불(기타) 714명, 명상 771명이 응답하고 항목 16번 명상포교 유형에서 1412명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 14번의 설문 조사 결과는 수행을 콘텐츠로 생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파악되어진다.

1),2) ▶ ① 항목 13번과 같이 수행을 포교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적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행을 포교활동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팀활동과 상이하거나 매뉴얼 부재 또는 준비부족으로 응답한 인원이 기타 포함하여 1277명이라는 사실은 수행포교의 개념을 각 팀 활동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며.

② 일상사로 진행하는 수행을 포교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행을 포교활동의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생성시키기 위한 연구 및 방안과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4. 수행포교 시 주체성

1) 수행포교 진행자에 관한 설문 항목 17번에서 응답자 2009명 중 순번 해당자가 901명이고 355명은 특정인 만 진행 421명은 스님이 진행이라고 응답

- 1) ▶ ① 순번 해당자로 응답한 901명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421명 특정인 만 진행이 355명으로 파악됨은 포교 활동 시 자신의 수행을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따라서 교육은 지도자 능력 강화 방향의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명상포교의 지속성

1) 수행지도에 관한 설문에서 항목 20번의 수행지도시간 90분 전후는 83명이 응답, 21번의 수행지도 정기진행은 147명 응답, 22번의 수행지도 3년 이상 경력은 170명이 응답했다.

1) ▶ ① 전체 설문지 응답자 2709명 중 20번은 1283명이 응답, 21번은 1282명, 22번은 1136명이 응답했고 이중 170명 전후 정도가 명상포교를 포교활동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음으로 파악되어 진다.

② 하지만 명상 수행을 30분~50분 정도로 비정기적인 형태로든 수행 지도한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826명이며 3년 이내의 경력자도 494명이다. 따라서 포교사단 내에 명상포교 경력자 및 현장 포교 가능인원은 총 700명 전후로 추산되어진다.

③ 명상포교 인적 자원을 전문가와 경력자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수준 확인 절차를 통해 포교사 대상의 명상교육의 방안과 포교활동의 다양한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명상수행 교육

1) 명상 수행 교육 참가의사를 설문하는 항목 25번은 응답자 2133명 중 1665명이 참여, 교육내용 보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349명으로 2014명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 함.

2) 교육 형태는 온라인이 1970명, 대면이 1781명으로 응답하고 단기집중도 1962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함.

1), 2) ▶ ① 자기계발과 명상포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짐.

② 명상수행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명상포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도 항목 30번 명상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125명이 있고 항목 22번과 같이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자도 170명 정도 있어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명상수행 외부기관 협력관계 설정

1) 명상 센터는 포교원 산하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과 그 외 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1935명 응답한 항목 29번과 같이 1290명 중 불교상담개발원이 278명 그 외가 1012명으로 집계되어진다.

1) ▶ ① 전체적인 방향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위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포교사들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파악 되어진다.

② 단, 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협력관계를 맺어 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명상센터마다 수행의 방식과 내용이 다르고 단체에 따라서는 자기완결적인 구조 즉, 단체자체가 포교성을 갖고 있어 포교사의 포교활동과 조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명상수행 위탁 및 연계교육을 기획 할 수 있다.

8. 수행분야 종합평가 및 사업방향

1) 수행 내용 평가에 있어 명상 등의 좌선은 포교사 이후 관심 받는 분야이지만 염불 등의 기도중심 수행을 과반 이상의 포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어졌다.

2) 하지만 사찰 내에서 스님이 주관하는 의식집전의 성격 상 염불 등의 기도 정진은 포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3) 이는 포교의 속성을 갖는 신행활동에 있어 포교사들이 개인적 수행으로 한정되게 되어 포교사 포지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스님과의 역할분담과 의식집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기도의식 집전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한편으로 수행 중 좌선분야 특히 명상분야는 설문조사에서 집계되어진 170명 전후의 경력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활용방안으로서는 명상포교 콘텐츠 정리 및 보급의 역할을 맡겨야하며 이를 위해 경력자 모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간화선 수행경력자도 동일하다.

6) 교육과 관계해서는 포교원 정책 사업인 명상수행프로그램 구축과 시행 내용이 제안되는 데로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 불교해설 분야

1. 설문 응답자 불교문화 수준

1) 예시문과 같이 항목 문항에서 '잘한다' 이상을 문화해설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번~22번 문항 전체에 걸쳐 '잘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평균 인원은 469명이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978명이다. 합계 1447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 단순주제 문항인 2번, 7번, 9번, 11번, 21번에서 '잘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평균 인원은 805명이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1091명이며 합계인원은 1896명이다.

3) 복합주제 일반문항인 1번, 3번, 4번, 5번, 6번, 8번, 10번, 12번, 13번, 14번, 16번에서 '잘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평균인원은 423명이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1054명이고 합계는 1477명이다.

4) 복합주제 심화문항인 15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에서 '잘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평균인원은 230명이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742명이고 합계는 972명이다.

5) 불교문화 해설 관련 자격증 설문 항목인 30번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답인원 1416명 중 57명으로 집계되었다.

1), 2), 3), 4), 5) ▶ ① '보통이다' 상태로 응답한 이유는 불교문화 해설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단원들도 사전에 불교문화 해설을 준비한다면 '잘하다'로 전환될 수 있는 예비해설자로 파악되어진다.

② 불교문화 교육 안을 수립함에 있어 복합주제 심화 문항에서 파악되어지는 '잘한다' 이상의 230명 응답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불교문화 해설 수준이 보통이상인 점은 불교문화 분야를 포교활동의 주력 분야로서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많다고 파악되어진다.

2. 불교문화 포교

1) 불교문화 포교에 관한 설문 항목 24번에서 2222명 응답자 중 '잘한다'이상의 응답자는 315명이며 '보통이다'는 887명이고 합계는 1202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응답자는 '매우 미흡하다' 289명과 '미흡하다' 731명의 합계 1020명이다.

2) 항목 25번에서는 불교문화 해설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포교활동에 불교문화포교를 반영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1712명이다. 중복선택이긴 하나 팀 성격 상이로 불교문화 포교를 할 수 없다는 436명을 제외해도 불교문화 포교를 포교활동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과 처지에 응답한 인원이 많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1), 2) ▶ ① 25번은 불교문화를 포교활동에 반영하고자하는 의지를 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인데, 불교문화를 포교활동의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불교문화 교육을 모색함에 있어 포교 관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는 스피칭 실습 중심의 교육이라 할 것이다. 다만, 스피칭을 지속성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3. 불교문화해설 교육 참여

1) 불교문화 해설 교육 참여의사에 대한 설문 항목인 26번에서 응답자 2407명 중 1973명이 , 인센티브 또는 교육내용 보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328명으로 2305명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 함.

2) 교육 형태는 온라인이 2178명, 대면이 2008명으로 응답하고 단기집중도 1796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함.

1), 2) ▶ ① 응답자 대다수가 불교문화 해설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② 불교문화 해설분야는 전문 인력이 포교사단 내에 있는 주력분야이며 포교사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포교활동에 불교문화 해설 분야를 콘텐츠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매우 우수하다고 파악되어진다.

③ 불교문화해설 분야를 포교활동에 반영하고 포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교문화해설을 제도화하여 관광문화해설사를 장기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4. 불교문화분야 종합평가 및 사업방향

1) 불교문화해설 분야는 포교사 전원이 해설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주력분야이다. 하지만 설문 집계에서 개인 숙련도 차원에서는 불교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관련 숙련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포교활동 차원에서도 포교활동에 불교문화의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다.

2) 따라서 불교문화 교육 사업은 불교문화해설 능력을 고양시키고 포교활동에 불교문화 내용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불교문화해설 교육은 스피칭과 스토리텔링 구성력을 향상시켜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사업은 첫째 포교활동에 반영할 불교문화 콘텐츠를 정리 및 보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분야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4) 둘째로는 포교사의 불교문화해설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가칭 '불교문화 해설사'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가칭 '불교문화 해설사'는 종단 승인을 통해 신설 발급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를 통해 포교사들의 위상은 강화되고 포교활동 영역은 확장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칭 '불교문화 해설사'의 발급과 활동 실적은 정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문화해설사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의식집전 분야

1. 의식집전 교육 현황

1) 법회의식 집전 교육 설문 항목인 1번은 응답자 2462명 중에서 지역단 조직체계에서 배운 응답자는 1353명이며, 외로 분류되는 개인과 사찰 등에서 배웠다는 응답자가 787명이며 배운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11명이다.

2) 항목 16번 염불의식집전 교육에 있어서도 응답자 2385명 중 지역단 조직체계에서 배운 응답자는 1394명이며, 외에서 배운 응답자는 380명이고 배운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33명이다.

3) 불자생활의례 교육 설문 항목인 23번에 있어서도 응답자 2129명 중 지역단 조직체계에서 배운 응답자는 1220명이며, 외에서 배운 응답자는 315명이고 배운 적이 없는 응답자는 612명이다.

1), 2), 3) ▶ ① 의식집전 교육을 지역단에서 배웠다는 응답자는 과반수를 조금 넘는다. 이는 개인이 불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역단에서 진행하는 의식집전 교육 상황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어진다.

② 의식집전의 특성 상 교육기관의 통일성이 요구되어지는바,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어진다. 물론 종단 내의 통일된 의식집전집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립되어있지 못한 현실도 존재하지만 이를 적절한 선에서 정리하는 방안이 질실하다고 보여진다.

2. 의식 집전 수준

1) 법회집전을 묻는 2번, 독송집전을 묻는 12번, 예경집전을 묻는 21번의 평균율을 분석하면 평균 응답자 2316명 중 '미흡하다'가 845명, '보통이다'가 947명, '잘 한다'이상이 523명이다.

2) 장의염불을 묻는 26번에서 '미흡하다'가 1465명, '보통이다'가 462명, '잘 한다'이상이 203명이다.

3) 사시불공 의례를 묻는 27번에서 '미흡하다'가 274명, '보통이다'가 613명, '잘 한다'이상이 1405명이다.

1), 2), 3) ▶ ① 일반 의식집전을 묻는 법회, 독송, 예경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평균 '보통이상'이 1470명으로 응답자 2316명에 대해 63.4%이다. 그러나 장의명불에서는 '보통이상' 응답자가 28.7%이나 사시불공에서는 '보통이상'이 87.1%이다.

② 이는 응답자들이 수행분야 설문 항목에서 기도 정진 응답률이 76.6%인거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파악되어진다. 다만, 장의염불은 의식집전 분야에서도 많은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인해 '보통이상'이 28.7%이지만 이는 장의염불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도로 파악되어진다.

③ 사시불공에서 '보통이상'이 87.1%인 점은 늘 기도 정진하는 포교사의 실행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포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집전 수준을 63.45%에서 87.1%를 초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식집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의식집전과 포교활동

1) 항목4번은 사찰법회를 포교활동 팀을 포함한 포교사 조직으로 하는가? 라는 설문인데 응답자 1966명 중 '한다'가 898명, '개인차원에서 한다'가 595명, '안한다'가 473명으로 사실상 '안한다'가 합계 1097명이다.

2) 사찰 내 포교사 주관의 기도정진을 묻는 설문 8번에서는 '한다'가 739명이며, '안한다'가 1281명이다.

3) 특이한 사항은 항목 14번과 15번을 파악하면 포교사 주관의 기도정진 시 동참 포교사 인원과 대중의 인원이 엇 비스하다는 점이다. 10명 이내 시 포교사 707명/대중 655명, 20명 이내 시 포교사 431명/대중 384명, 30명 이내 시 포교사 209명/대중 187명, 40명 이내 시 포교사 94명/대중 78명, 40명 이상 시 포교사 151명/대중 128명이다.

1), 2) ▶ ① 포교사 주관의 기도 법회에서 '한다' '안한다'의 분포도가 큰 차이 없이 보여준다. 결국 포교사들의 사찰내에서의 기도정진은 응답자 과반이 부족한 인원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② 의식집전을 묻는 위의 2번, 12번, 21번에서 2360명 중 1470명이 보통이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사 주관의 기도정진 응답자가 800명 전후인 점은 사찰 내에서의 포교사 지도력 및 포교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③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은 항목 14번 15번에서 포교사 주관 기도정진 시 대중인원이 엇 비스하게 동참한다는 점이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 내에서의 실행은 포교활동의 형태이기도 하는데 사찰 내에서의 포교사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개선책 및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염불 수행력

- 1) 염불수행력을 묻는 항목 18번에서 응답자 1900명 중 1398명이 하고 있음으로 응답하고 있고 502명이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 2) 1회 평균 수행일을 묻는 항목 19번에서 868명이 10일 이내로, 597명이 10일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32명이 안한다로 응답하였다.

1), 2) ▶ ① 의식집전을 묻는 위의 2번, 12번, 21번에서 1470명이 보통이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과 엇 비스하게 1398명이 염불수행하고 있음으로 파악되어진다.

② 이는 의식집전 능력과 염불수행력이 비례하여 움직이고 있음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염불수행의 특성이기도 하다.

5. 불자생활의례 활용도

- 1) 불자생활의례를 포교활동으로 묻는 항목 24번에서 '미흡하다'이상이 1126명이고 '보통이상'이 929명이 응답하였다.
- 2) 불교생활의례를 활용한 포교활동 대상을 묻는 25번에서 응답자 1489명 중 772명이 불자, 401명이 일반대중, 266명이 포교사, 50명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1), 2) ▶ ① 불자생활의례에 대한 활용도는 응답자의 과소인원이나 응답자 중 401명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불자생활의례를 활용하여 포교활동 하였다는 점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응답이다.

② 의식집전과 불교의례를 개인의 수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교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③ 따라서 불자생활의례를 활용한 포교활동을 계획하고 독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의식집전 교육 참여 의사

- 1) 의식집전 교육 참여의사에 대한 설문 항목인 28번에서 응답자 1923명과 인센티브 또는 교육내용 보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293명 등 합계 2216명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 함.

2) 교육형태는 온라인이 2036명, 대면으로 1797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 1), 2) ▶ ① 응답자 대다수가 의식집전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② 염불 및 독송수행과 의식집전은 포교사단이 주력할 수 있는 신행분야임과 동시에 포교분야이기도 하다. 사찰 내에서의 포교사 포지션 등으로 인해 포교사 주관의 독송기도에도 스님이 집전하는 상황(항목 11번 참조)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찰은 바라지 인력의 부족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식집전 분야에서 스님과 포교사 위치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며 포교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칭'기도의식 집전사'자격증을 종단과의 공론과정을 통해 발급받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한편으로 불자생활의례가 갖는 의미는 항목 25번과 같이 불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행과 포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자생활의례 교육을 의식집전 교육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의식집전분야 종합평가와 사업 방향

1) 설문 집계 결과 의식집전 교육이 지역단에서 통일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파악되어졌다. 이는 의식집전 교육의 필수조건인 통일의례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집전 교육에 관한 본단과 지역단의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2) 의식집전 능력은 과반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지만 포교사 주관 기도 정진 시의 횟수 및 집전자 집계결과에서는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졌다. 이는 수행분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찰의 성격과 이 속에서 스님과 포교사의 업무영역 설정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졌다고 파악되어진다. 포교사의 사찰 신행활동 강화와 사찰의 집전자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3) 설문 집계결과는 포교사의 염불 등의 기도수행은 의식집전 능력과 비례하여 과반 이상의 포교사들이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또한 불자생활의례를 포교활동으로 활용한다는 포교사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불교의례를 포교활동에 의식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는 파악이 되어 진다.

4) 따라서 사찰 내외에서 불교의례를 활용한 포교 신행활동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장려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또한 의식집전이 지역단마다 편차가 있으며 본단에서 통일된 의식집전 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이 종단 내의 통일된 의식집전집이 아직 부족한 점인바, 이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 설법 분야

1. 설법 경험 관련

1) 설법경험을 묻는 항목 1번에서 '있다'가 1106명이고 '없다'가 1098명이다. 여기서 '있다'중 '몇 번'인 633명을 제외하면 '있다'로 응답한 인원은 473명이다.

2) 설법경험에 대한 '있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2번에서 '15분 이내'가 584명이고 '30분 이내'가 469명이며 '50분 이내'가 146이며 '1시간 이상'이 5명이고, 그 외 361명은 '없음'이다.

3) 설법 피드백을 위해 설법 만족도를 대중들에게 확인하는지 묻는 항목 11번에서 '설문지를 활용'한 응답자가 132명이고 현장에서 '구두로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414명이고 '개인적으로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198명이다. 응답자 합계 744명이 확인하고 595명이 '확인 안한다.'고 답했다.

1), 2), 3) ▶ ① 항목 2번에서 설법시간을 '50분 전후'로 응답한 620명이 설법 숙련자들이다. 여기서 설법 숙련자 대상으로 '30분 이내'를 포함한 까닭은 포교의 대상, 공간 등 특성에 따라 설법 시간이 30분 이내에서 50분 이내로 조정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② 하지만 항목 11번 설법 피드백 방식에서 '설문지 활용'으로 응답한 132명이 경험이 풍부한 설법 숙련자로 파악되어진다.

2. 설법과 포교활동

1) 설법 장소를 묻는 항목 3번에서 1556명 응답자 중 포교현장이 819명, 교육기관이 45명, 사찰이 290명, 기타 장소 26명, 그 외 없음이 376명이다.

1) ▶ ① 설법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는 포교현장으로 파악되어진다. 설법 장소로 사찰도 표시되어있지만 후속적인 문항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침, 불교문화해설 등의 포교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설법 시 사용매체

1) 설법 시 활용 자료를 묻는 항목 7번에서 PPT가 190명, 동영상이 101명, 인터넷 자료가 398명, 책 등의 자료가 638명, 기타 등이 272명이다.

2) 설법 시 PC등의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 항목 8번에서 '기기사용법을 몰라서'가 199명, 'PC 없어'가 124명, '번거로워서'가 278명, 'PPT 제작법을 몰라서'가 254명, 기타 등이 348명이다.

1), 2) ▶ ① PC등 보조매체를 이용한 설법 진행은 항목 7번과 같이 291명으로 파악되어진다.

② 여기서 'PC가 없어서'로 응답한 인원이 124명이라는 점은 포교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또한 항목 8번에서 '기기사용법을 몰라서' 등으로 답한 응답자가 577명 등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PC 보급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④ 한편으로 자유발언에서도 기재되어있는 주요 개선 사항은 '교정시설과 군법당에서 의 PC 사용'이라는 점이다. 설법 시 PPT의 사용은 설법의 내용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설법 내용

1) 설법 내용을 묻는 항목 6번에서 '경전 인용 적극'이 291명, '경전 내용 생활 연관'이 840명, '팀에서 제공하는 경전 내용 인용'이 77명, '경전 소극적 인용'이 128명, '안한다'가 65명이다.

1) ▶ ① 설법 시 경전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응답자는 1208명으로 집계되어진다.

5. 설법 매뉴얼

1) 설법 자료의 내용과 준비 상태 등을 묻는 항목 5번에서는 '기존자료+추가보충 방식'이 768명, '기존자료'활용이 296명, '팀 제공'이 106명, '타 포교사'자료 활용이 49명이며, '경전 등 활용' 기타 응답이 220명이다.

2) 항목 9번에서 '기존 자료 활용'이 353명, '대상 맞춤'제작이 450명, '인터넷 활용'이 147명, '무자료 설법'이 269명이고 기타 등이 224명이다.

3) 설법 자료집 공유의향을 묻는 항목 10번에서 '공유 가능'이 1026명이고 '공유불가'가 92명이다.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3명이 있다.

1), 2), 3) ▶ ① 위의 설문 결과는 역으로 설법메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어진다.

② 기존의 설법 자료들을 취합 또는 공유요청해서 정리하면 설법메뉴얼의 주제와 사안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파악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작업 기획이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6. 설법과 팀웍

1) 설법 내용 및 기법 등에 대한 팀 내의 논의를 묻는 설문 항목 12번에서 '설법시'마다 하는 응답자가 172명, '몇 번에 한번'이 276명, '가끔'이 87명, '없다'가 563명이며 기타에서 '미기재'가 204명이다.

1) ▶ ① 팀 내부에서 설법 내용 및 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함은 팀 내부의 역량과 설법준비자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② 설문 만족도 확인을 대중에게 설문지를 활용하는지 묻는 항목 11번에서 '설문지를 이용한다'에 132명 응답하였는데 설법 시마다 팀 논의를 한다는 응답자 172명과 엇 비스하게 나왔다. 이는 포교사단 내 조직차원에서 설법 준비에서 마감까지의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함은 아직까지 소수라고 파악되어진다.

③ 설법을 비롯한 모든 분야는 팀웍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설법을 통해 팀웍 정도를 유추하였지만 포교활동 팀과 팀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④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의 주체를 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7. 설법 교육 참여의사

1) 설법 교육 참여의사에 대한 설문 항목인 13번에서 적극 참여 응답자 452명과 상황보고 참여 응답자 1097명, 인센티브 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23명, 검토 후 참여 250명 등 합계 1829명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 함.

2) 교육 형태는 온라인이 1735명, 대면으로 1585명 응답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함.

1), 2) ▶ ① 설법은 포교활동의 주요 분야로서 스피칭 능력으로 표현 할 수 있다.

② 교육의 방향은 스피칭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실습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 시 스피칭 훈련의 특성 상 필요한 상호간의 평가로 팀웍이 강화될 수 있게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8. 설법분야 종합평가 및 사업방향

1) 포교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설법분야에서 설법 숙련자로 파악되어지는 인원은 예상외로 적었다.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나 자유발언에서 설법은 스님의 영역으로 설정한 응답도 있었다. 이는 포교사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한계선을 설법불가로 설정한 한정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파악되어진다. 이는 설법 교육 참가의사가 설문 응답자 대다수인 정도로 설법에 대한 관심은 높은 점이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그리고 설법 경력자 응답자들은 설법자료를 직접 제작 할 정도로 열의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다. 따라서 설법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설법의 콘텐츠를 정리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3) 다만, 설법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팀웍의 역할이 중요하는데 팀웍을 활용한 설법 준비 및 진행은 소수에 그쳐있다고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설법 매뉴얼은 팀웍을 반영하여 제작해야 한다. 또한 교육도 팀웍을 반영해야 한다.

4) 다른 한편으로 설문조사 결과로 집계되어진 사항 중 제도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다. 설법에 필요한 PC사용이 포교활동 공간의 특성, 즉 보안이 요구되는 교정시설과 군법당 등에 PC사용이 금지되어 설법에 매우 중요한 PPT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모든 포교활동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전수조사를 하여 불필요한 사항으로 인해 일선의 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지 집계결과 종합평가 및 재교육 안)

1. 설문지 집계결과 종합평가

1) 재교육 찬성의사의 특성

설문지 집계결과 응답한 포교사들 대다수는 재교육에 대해 찬성과 참여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중 상황 또는 교육내용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과반이 넘었다. 이는 재교육 교과 내용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라 파악되어진다.

2) 재교육 분야에 선택과 집중

또한 재교육 교과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되 포교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재교육의 교과과정은 병렬식 나열을 탈피하고 포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파악되어진다.

2. 재교육 안)

■ 들어가며

1) 재교육 선택분야는 불교문화와 의식집전

재교육은 수행, 불교문화, 의식집전, 설법 등의 4대 분야를 동시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인력과 자원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포교활동 성과이자 결과물로서 확보되어진 불교문화와 의식집전 분야는 재교육 분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파악되어진다. 수행과 설법 분야는 포교콘텐츠 관련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는 별도 기획하여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2) 재교육의 형식을 자격증 교과과정으로

재교육의 형식은 포교활동의 대외적 여건과 포교의 공신력을 위해 '자격증' 제도로 제안한다. 사찰 내외의 포교 여건은 포교사 복장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교문화해설 포교활동 분야는 관청에서 발급하는 관광문화해설사와 대불청에서 발급하는 사찰문화해설사의 확산으로 인해 입지가 위축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종단에서는 포교사의 부전보조역할이 가능한 의식집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예경의식과 참배기도 분야의 주관자 역할을 위해서는 의식집전 능력의 향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포교 현장은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3) 자격증 선 실시 분야는 '불교문화해설'로

하지만 분야의 특성 상 '기도의식 집전사' 시행은 종단과의 협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현재 우리는 '불교문화해설사'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어진다.

4) 년도 별 순차적 진행으로 전체인원 '자격증'화

다른 한편으로 '불교문화해설사' 실시는 재원의 문제로 인해 포교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일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는 년도 별로 인원을 확대하여 전체에 대한 재교육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재교육(자격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

1) 재교육(이하 '자격증') 실시 주체는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불교문화해설사의 대외적 목적 중 하나는 '관광문화해설사'를 제도적으로 대체 또는 제도 변경을 이루어내어 제도로 진입함이다. 따라서 민간자격증이지만 '공인'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자격증의 성격을 공인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발급 기관은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2) 사단법인 설립에는 출연금과 회원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설립에는 5천만원 이상의 출연금과 회원이 필요하고 지자체로 등록한 후 실적과 전국 3개 지부 이상 및 100~200명의 회원 확보 후에 문화관광부로 변경할 수 있다. 등록처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대외적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

3) '자격증'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재능보시와 본단 지원금으로 가능하다.

수강생 200명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천만원 전후가 소요되지만 우리는 재능보시와 본단 지원금 및 사단법인 회비로 가능하다. 다만, 사단법인의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예측기간인 5년 전후로 한정하며 안정화 이후에는 강사보시금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를 상정 할 수 있다. 자격소지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교육보수비, 자격증 제도 정착 후에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자격증 제도화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실비 지원금 중 소정의 기부금 등이 있다.

■ 포교사단과 사단법인의 관계

1) 사단법인은 포교사단 '정관 제3조(사업)6호'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산하단체이다.

사단법인의 임원과 회원 자격요건 및 구성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본단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포교사로만 가입한다. 사단법인 설립은 포교사단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포교사단 사업이며 현재 포교원에 구두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조직 구성과 절차는 포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사단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절차과정이다.

2) 사단법인은 포교사 재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바, 본단과 지역단에서 함께 운영하는 구조여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전국적인 조직구조는 포교사단 조직 구조와 동일해야 한다.

재교육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그리고 포교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위해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성공은 본단과 지역단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주요 조직 체계와 구조는 포교사단의 주요조직의 구조와 동일해야 한다.

■ 자격증 실시 파급효과

1) 포교활동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교사 및 포교활동을 포교 대상과 비종교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격증은 포교사 및 포교활동의 공신력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명확하다고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자격증은 포교활동과 포교대상을 확장시키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2) 포교활동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영역을 확보 할 수 있다.

자격증은 전문성을 의미하며 사찰 내외에서 활동의 영역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 활동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사찰 내에서 불교문화해설을 함에 있어서도 관관문화해설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은 실정이나 자격증은 이를 해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가칭 ‘의식집전 지도사’는 출가자 급감 등 종단의 난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재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어진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기도수행을 하는 다수의 포교사들을 신행활동의 지도자로 활용 할 수 있는 가칭 ‘의식집전지도사’는 포교사들을 사찰 내에서 예경의식 및 참배기도를 주관시킬 수 있어 사찰 내에서의 신도들 기도정진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4) 근래의 불교왜곡을 사전예방 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왜곡 및 편협현상은 오늘날에 와서 정치적 당락에 따른 정치인 발언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사찰 내에서 조차 사찰 관광객에게 관광문화해설사가 비불교적 관점에서 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불교문화를 해설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사 관광문화해설사가 무종교인이라 해도 불교문화의 정수는 무형의 자산인 부처님가르침과 경전을 해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불교문화 해설을 흥포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제도 도입과 시행이 시급한 일이며 이는 불교왜곡과 편협을 사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 진다.

5) 포교사의 자긍심을 최대한으로 고취시킬 수 있다.

불교문화해설팀의 활동이 불교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불교문화해설사를 소지한 포교사들은 사찰 외에서도 불교문화콘텐츠로 포교활동 함에 따라 포교활동의 질과 내용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긍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포교사 및 포교사단의 위상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다.

6) 자격증을 추가로 개설 할 수 있다.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경험과 성과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 계획하고 있는 수행분야, 설법분야 뿐만 아니라 포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자격증 신설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재원의 문제는 불교문화해설사의 제도화 및 활성화와 관광문화해설사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 마무리

지금의 포교사단 대내외적 여건은 포교사단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탈종교화에 따른 불교신도의 감소, 사회 계층의 세분화와 및 다양화와 갈등 심화되고 종단 외적으로는 불교단체들의 포교 방식 진화와 포교현장에서의 경쟁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단 내적으로는 출가자 절벽시대와 신도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단 총책의 핵심인 사찰 수행 활동 강화를 포교사 및 포교사단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문화와 의식집전 분야에서 1인1전문분야 전법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재교육과 포교활동 사업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단 외적의 포교지형과 종단 내적의 우리 형편에서 포교사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포교사 재교육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포교활동의 공신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자격증 제도' 신설과 이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력과 재원 등 우리의 여건이 일시에 모든 포교사들에게 전면적으로 실시 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몇 년간 순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진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상을 위해, 긍지를 위해, 포교를 위해,

감사합니다.

첨부

포교사단 민간인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에 관한 법률적 검토서

포교사단 12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포교사 재교육 관련하여 불교문화해설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칭)불교문화해설사' 민간인자격증 발급을 위해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포교사단 민간인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을 제안함

1. 자격증 제도 개관

가. 자격증 종류 :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나. 민간자격증 종류 : '민간등록자격증' '민간공인자격증'

민간 등록자격증	민간 공인자격증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 관리 운영하는 자격,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법인이 신설 관리 운영하는 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함 (등록만 하면 됨) ※ 등록제도 란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2008년부터 등록제 실시)	주무부장관이 등록업체 중 심의회의를 거쳐 민간자격을 공인 함 (등록+공인) ※ 공인제도 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업무위탁기관) 자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 https://www.pqi.or.kr/indexMain.do (심사기간 등 총 소요기간 4개월)	2000년도부터 국가공인제도 실시, 매년 공인자격 심사회 열림, 2000~2021년까지 총 22차 공인자격증 심의회가 열림 -자격요건: ①등록된 민간자격일 것 ②법인일 것 ③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이 있을 것/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고시함(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
2022.3 현재 총 44,896개	2022.3 현재 총 96개
99.4%	0.2%

※ 국가자격증은 총 178개(0.4%)

다. 민간공인자격증 전제조건 : '민간공인자격증'기관이 되려면 '민간등록자격증'기관이 된 이후 활동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선 '민간등록자격증'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이 되어야 함.

2. 민간자격증 신청주체 개관

가. 신청주체 : 개인, 단체, 법인

나.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개인, 단체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개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 임대차계약서(임대) ※무상 사용시에는 당사자간 협약서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등기임원 모두 작성)
민간인자격관리운영규정 (첨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예시)	
※ 평생교육기관, 학원, 수상레저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있을 시 아래 서류 추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및 등록증, 지정서 등 (학원법) 학원 및 교습소 등록증 및 신고증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 민간인자격관리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이 일의 80~90% 차지함. 종합적 구상 이후 추진할 수 있음 (총칙, 업무구분, 검정기준 방법, 응시자격, 수험원서, 검정시험 준비, 출제 및 감수,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검정시행,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시험채점, 시험문항 및 감독위원 등)

※ 검정시설 및 장비는 문화관광양성해설사 교육과정이라면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규정도 검토하여야 하는 바, 강사구성, 교육교재, 교육시설(80m²(24평)이상 강의실,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도 구비하여야 함

3. 포교사단 단체 개관

- 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 단체 (고유번호증)
- 나. 무소유실천운동본부 : 단체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행정안전부)
- 다. 사단법인 좋은인연 :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시)
- 라. 소결 : 위 단체 중 하나를 신청기관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민간공인자격증' 기관이 되려면, 포교사단이나 무소유실천운동본부 한 곳을 법인으로 만들거나 제3의 법인기관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음

4. 유사기관 사업 검토

- 가.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 2020년 '사찰해설사' '민간등록자격증' 단체등록 후 행정안전부에 보조금지원단체 신청하여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5곳의 지부에서 2020년, 2021년 '사찰문화해설사' 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자 배출. 전년도 자격증 취득자는 시험응시자 108명, 합격자 102명, 2022년 3기 모집 중
※ 지난 합격자 명단에 포교사도 다수 있음
- 나. 대응전략 : 위 대한불교청년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포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5. 사단법인 설립요건

가. 기본요건

- 전국 3개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충분한 경력이 인정될 것
- 지부는 사무실계약서와 함께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출입구가 달라야 함, 지부의 직원은 사단법인 업무를 겸임해도 됨, 지부의 회원 명단도 따로 제출해야 함
- 모(母)단체가 있는 경우 모 단체와 새로 만들고자 하는 사단법인과 활동 연속성이 확인 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나. 기초재산(자본금) : 정확한 규정은 없고 단체의 목적과 주요사업을 이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가능

- 문화관광체육부
 - 전통문화분야 : 5,000만원 이상

다. 발기인 수 : 150~2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판단되면 승인 가능 (창립총회 시 모여야 하므로 구비서류 제출 가능한 인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함)

라. 이사 총원 : 제한 없음. 법인의 활동에 충분한 숫자라고 판단되면 승인 가능
공익법인의 경우 최소 5인 최대 15인으로 제한이 있으나 사단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포교사단 임원을 반영하여 이사 19명, 감사2명으로 구성

마. 대표이사 :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모(母)단체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형식은 불가능하나, 내부 규약을 따로 정하여 포교사단 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현재 중앙신도회 산하 '아름다운 동행', 포교사단 산하 '좋은인연' 사단법인도 각각 모(母)단체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운영함.

바. 관련법령 : 민법 1편[총칙] 제3장 법인(별첨 민법 3페이지 하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12호)

6. 포교사단은 조직이 탄탄하고 불교문화해설 및 사찰문화해설포교팀이 구성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인자격증 단체로 등록하여 공인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자격증까지 발급하면 문화해설분야 포교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포교사단 자체 유능한 강사 발굴 등 여러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포교원 정책 기조 및 과제 중 포교사단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서

1. 포교원 정책 3대 기조

- 실행중심 포교, 소통하는 전법지원, 포교역량 전문화
 - ▶ 취지
 - 탈종교화에 따른 신도 감소를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에서 해법
 - 수행전통에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찰 중심의 대중수행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와 정착
 - ▶ 방향
 - 전법 현장 중심으로 포교 정책 전환과 인력 배치
 - 포교방식 변화에 따른 각종 실행 및 포교관련 제도 개정
 - 일선 포교 인력의 포교 역량 전문화

2. 포교원 10대 과제

- ①순례프로그램 개발 ②실행중심 포교프로그램 개발 ③포교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④모바일 실행시스템 개발 및 보급 ⑤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 ⑥전법단 강화 및 활동영역확대 ⑦전법중심도량 활성화
- ⑧포교원력 결집대회 개최 ⑨현장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⑩신도조직 및 신도교육 활성화

3. 포교원 정책 10대 과제 중 포교사단 관련 정책 검토

1) ⑤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16page)

(1) 포교사단 및 포교사의 지역 및 사찰 연계 강화

- 포교사 관련 : 실행활동 강화, 출신불교대학과 재적사찰 포교활동 강화 방안 모색
- 포교사단 관련 : 교구본사 및 전법도량으로 팀 재편성 및 재배치
 - ▶ 요구사항 : 포교사의 활동 무대를 사찰 내로 이동 ▶ 사찰 중심 실행활동, 사찰 거점 포교활동
 - ▶ 검토사항 : ○ 포교원 직할 개념 상실 상황 검토 ▶ 포교사의 신도화
 - 교구본사 중심 ▶ 포교원 직할 관리 상실 ▶ 포교사단 지역단 독자성 상실 ▶ 종단 지원업무 불가능 예상
 - 포교사단의 계층포교 포기여부 검토
 - 전법도량, 교구본사 등 사찰 거점 지역포교활동에 필요한 재정, 인력, 조직, 관리, 의지 등에 대한 검토
 - 전법도량, 교구본사 등 사찰 실행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범위 검토
 - 포교사 주거지와 전법도량, 교구본사 주소지 상이 문제 검토

(2) 포교사 배출제도 변경

- 고시제도 폐지 ▶ 추천 및 면접과 교육연수과정으로 선발
 - ▶ 취지 : 실행활동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 신도 양성요구 해결목적
 - ▶ 문제점 : ○ 포교사 선발의 공인성 상실과 신도와 의 차이점 상실 ▶ 포교사 정체성 상실 ▶ 포교사 제도 붕괴
 - 포교사의 하향평준화 ▶ 정책의 요구과업 수행불가, 포교사의 포교과업 상실
 - ▶ 예상 : 포교사 소멸, 포교사단 붕괴

(3) 전문포교사 강화

- ▶ 취지 : 일반포교사는 선진 신도화로 신행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포교사 활동을 상향조정하되 전문포교사로 대체하기 위함
- ▶ 검토사항 : ○ 전문포교사 사문화에 따른 비현실성 검토
 - 전문포교사 관리주체 검토
 - 스님, 일반포교사, 전문포교사 관계설정 및 역할 범위 설정 검토
 -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 간에 위계 구성과 갈등 발생 검토

2) ⑥전법단 강화 및 활동영역 확대(17page)

(1) 신규 전법단 출범지원 및 영역 내 분야별 세분화

(2) 전법단별 활동 지도법사 관리 및 지원강화

(3) 전법단 전문성 강화

- ▶ 취지 : 계층포교 활성화, 전법단의 계층 포교력 강화, 이를 위해 전법단 영역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 ▶ 검토사항 : ○ 현대사회 계층화의 다양성에 따른 포교 전략 검토
 - 출가자 절벽시대와 분야별 전법단 지도법사 수급 가능 여부 검토
 - 전법단 계층포교 시 요구되는 자원, 인력 가능 여부 검토
 - 포교사단 계층 포교활동력 대체 가능 여부 검토

3) ⑩신도 조직 및 신도 교육 활성화(21page)

- (1) 신도조직 소통 강화
- (2) 신도조직 실무자 연수
- (3) 새신도 안내교육 자료(교재) 및 운영 매뉴얼 배포
- (4) 신도 기본교육 수행법 강의지침서 개발
- (5) 신도 전문교육 강의지침서 개발
- (6) 포교신도단체 교육 강화
 - ▶ 취지 : 입도 및 기존 신도 관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리더십 함양 및 불교 의식제고와 소속감 고취를 위함
 - ▶ 포교사 역할 설정 : 새신도 교육 및 관리와 기타 사찰에서 요구하는 역할
 - ▶ 검토사항 : ○ 새신도 교육 시 필요한 포교사의 공인성 검토
 - 선발제도 변경에 따른 포교사 하향평준화와 새신도 관리를 위한 전문적 불교소양 간의 괴리 문제 검토
 - 신도 급감에 따른 입도 신도 부족현상에서 새신도 교육이 갖는 현실성 문제 검토
 - 신도 교육에서 필요한 포교사 역할 설정 검토
 - 포교핵심인력의 포교역량강화를 이끌 조직주체 및 방식이 사찰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 기존의 신도품계제도와 신도 교육 한계성 문제 검토

4. 총책 중 포교사단 관련 사항들 검토 정리

1) 총책의 취지가 갖는 긍정성

(1) 사찰 거점 전략과 신행활동 강화

- ▶ 내용 : 사찰 내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단 포교활동팀의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공식화하여 사찰을 거점화하고 신행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회로 활용
- ▶ 방향 : ○ 예경 및 참배 의식집전과 불교문화 해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부전스님 부족 사찰에 대한 신행활동 지원 방안 마련
 - 경전에 의거한 불교문화 해설로 불교왜곡 사전 방지
 - 포교사단 재교육 제도로 사찰 내의 포교핵심인력의 포교역량 강화 가능

(2) 신도조직과 신도 교육 활성화

- ▶ 내용 : 신도조직의 활성화는 사찰 내에서 신행과 교육을 일치시켜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신도 교육이 가능한 재가자는 포교사인 바, 포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신도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 마련
- ▶ 방향 : ○ 포교사 수준 향상을 위한 재교육 강화
 - 포교사 중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 업무 담당

2) 포교사 제도 변경 관련 사항들

(1) 포교사 고시 폐지 시 포교사 제도 붕괴 우려

- ▶ 내용 : 포교사 선발제도를 고시에서 추천과 면접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포교사의 대량 선발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 ▶ 포교사 선발의 공인성이 상실되어 신도와 차이점이 없게 되며 이는 정체성 상실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 ▶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이는 계층포교 및 사찰 내 신행포교를 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 ▶ 포교사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포교사 자격상실자가 속출하게 되어 포교사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 발생이 예상되어짐.

- ▶ 방향 : ○ 포교사 고시 유지
 - 신규 포교사 선발 수준 상향 강화 ▶ 사찰 내에서 요구하는 신도 교육 및 관리, 신행활동 활성화는 역설적으로 포교사 전문성 강화를 요구함 ▶ 따라서 신규 포교사 선발 시부터 포교사 기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필요

(2)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취지 해결방안

- ▶ 내용 : 지역단 내 팀을 사찰단위로 재편성하고 교구단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종책의 취지는 사찰 내에서의 포교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인바, 사찰 내에서의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신행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방향 : ○ 가칭 '의식집전지도사'와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 제도 도입 ▶ 신행활동 활성화 전문 신행포교인력 확보 ▶ 종책 취지인 포교사의 적극적인 신행포교 역할 해결
 - 사찰 관련 팀에 대한 역할 설정으로 신행활동 활성화 해결 방안 ▶ 포교사단 전체 290팀 중 활동장소에 사찰이 포함된 팀은 현재 113팀 1621명 임 ▶ 현재 활동은 사찰 내 신행활동과 팀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포교사 역할 설정으로 신행활동 배가 진행 가능

(3)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시 - ①조직 붕괴 우려

- ▶ 내용 : 포교사단 22년 역사 동안 종단의 각종 행사 시 인원 동원 및 지원업무가 이 가능한 것은 포교원의 직할 관리와 독자적 운영체계가 있어 가능했던 바, 포교사단 지역단을 교구본사 중심으로 운영하면 종단 지원업무 불가 상태 직면하게 되며 포교사단 지역단은 독자성 상실로 조직의 붕괴 예상
- ▶ 검토 : ○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시 ▶ 포교원 직할 관리 상실 ▶ 장기적으로 포교사단 지역단의 신행단체화 ▶ 기존 신행단체와의 갈등 발생 ▶ 종헌 종법 지위가 없는 포교사단 지역단 조직 소멸
 -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가능 여부 ▶ 주거지와 팀 성격, 교구본사 위치 등으로 팀의 교구 재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함.

(4)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시 - ②계층포교 성과 및 지역 포교기반 붕괴 우려

- ▶ 내용 : 현재 군법당, 교정기관에서의 포교 현실은 군승 및 지도법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포교사 역할이 중요시되는 상황
 - 포교사단의 계층포교 성과를 받아 이어줄 종단의 포교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의 사찰단위로의 전면 재배치는 계층포교의 기반 붕괴현상 발생
 - 포교사단 지역단 내 팀 활동 유지 ▶ 포교사 및 포교활동 지원 강화 ▶ 팀 활동 활성화 ▶ 지역 계층포교 활성화와 교구본사 및 사찰 신행활동 활성화 기여

5. 검토 마무리

종책의 취지인 한국불교의 수행전통 부흥과 이를 기치로 한 신행활동 강화에서 포교사 포교사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사료되어진다. 재가자 중 전문적인 포교 기량을 갖춘 포교사 포교사단은 포교원의 직할 조직이자 종단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사찰 내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사회 계층에 대한 계층포교를 강화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확인되어진다. 따라서 포교사들은 포교사단 창단 정신과 삼보호지의무를 늘 되새기며 종책의 취지를 살려 종단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제8대 포교원 중책발표 기자회견

전법 N! 제8대 포교원!

전법과 신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불교

불기2566(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차

제8대 포교원 중책발표 기자회견문	3
○ 제8대 포교원 중책과제	8
○ 불기2566(2022)년 주요 일정	21

8대 포교원

기자회견문

💡N! 제8대 포교원!

신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불교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고 계신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제8대 포교원장 범해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수행에 큰 진전과 만복이 함께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병마로부터 지구촌 공동체가 평화를 되찾고, 건강하고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각종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종단 포교 현장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종교의 위기, 한국불교의 위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통계로 드러나는 종교 인구의 감소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의 현실을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불교의 유구한 수행 전통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는 세계적으로도 대중 안거수행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수행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치열한 구도와 정진 끝에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셨습니다. 역대 큰스님들의 가르침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이어온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부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수행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결국 한국불교의 힘입니다. 이를 포교현장에 맞게 발전시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제8대 포교원의 책무입니다.

8대 포교원은 대중 수행을 통한 전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신도 교육 역시 교리 중심에서 신행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도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재가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과정 역시 신행을 바탕으로 교리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포교원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은 포교현장의 상황에 맞게 바뀌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전법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전법의 현장에서는 포교인력들의 활약에 따라 일선 포교가 좌우됩니다. 소중한 포교인력들의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포교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교원은 수행으로 전법의 불을 밝히자는 취지로

‘ **ON! 제8대 포교원!**’이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이를 따르는 3대 정책기조는 ‘전법 ON - 신행중심 포교’, ‘전법 플랫폼 - 소통하는 전법지원’, ‘전법 IN() - 포교역량 전문화’로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제8대 포교원은 포교 현장과의 소통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여름, 주요 소임을 맡은 사부대중께 포교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10대 과제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법 ON - 신행중심 포교’입니다.

순례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숨어 있는 순례코스를 대중에게 알려서 수행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별 맞춤형 순례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신행 중심 포교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불교4대 명절 콘텐츠를 소책자로 제작해 대중 수행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개발 및 관리** 영역에서 포교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여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둘째, ‘전법 플랫폼 - 소통하는 전법지원’입니다.

모바일 신행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서두르겠습니다. 모바일 신도증 개발이 우선과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찰 신행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포교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포교자격직의 활동영역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포교사 배출제도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법의 현장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 포교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습니다. **전법단 강화 및 활동영역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침체된 분야별 법회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전법단의 전문성을 높ی겠습니다. **전법중심도량 활성화**를 통해 전법중심도량을 명실상부한 지역 포교의 거점으로 격상하고, 종단의 포교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법 IN - 포교역량 전문화’입니다.

포교원력 결집대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침체와 위축감을 완화하고, 전국적 결집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각 분야에 맞는 포교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포교위원회, 신도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중무기관, 교구본사, 중앙중회, 포교신도단체가 참여하는 포교전략

개최하고, 포교진흥위원회를 만들어 포교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조직 및 신도 교육 활성화**도 중요과제입니다.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신도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도조직 실무자 연수로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아이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도교육을 새신도 안내교육, 신도 기본교육, 신도 전문교육으로 3단계 개편하여 맞춤형 신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는 행동에 의해서 드러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념적인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고귀한 사람이 된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행동에 의한 실천을 으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제8대 포교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포교정책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낌없는 충고도 필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한 세상, 평온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전법의 불을 높이 들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6(2022)년 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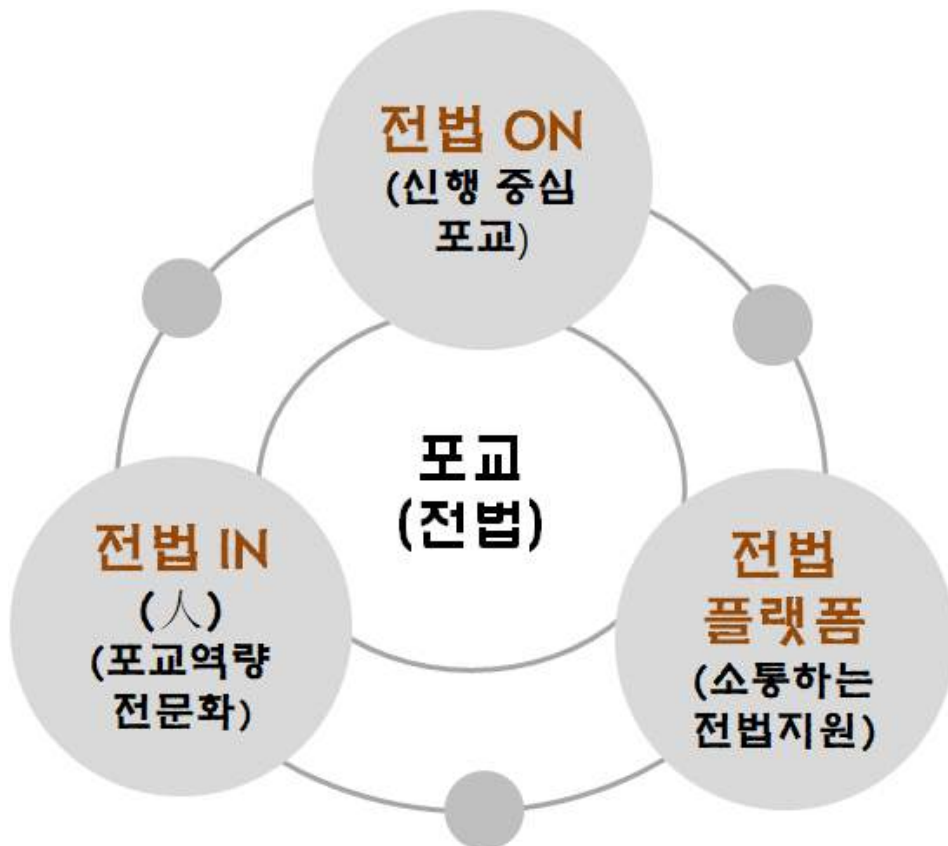
제8대 포교원장 해

8대 포교원 종책 과제

제8대 포교원 슬로건

💡N! 제8대 포교원!

신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불교



제8대 포교원 정책 기조 및 과제

□ 3대 기조

1. 신행중심 포교
2. 소통하는 전법지원
3. 포교역량 전문화

□ 10대 과제

전법 ON	신행중심 포교	개발 신행 중심 포교프로그램 개발 포교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전법 플랫폼	소통하는 전법지원	모바일 신행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 전법단 강화 및 활동 영역 확대 전법중심도량 활성화
전법 IN (人)	포교역량 전문화	포교원력 결집대회 개최 현장 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신도 조직 및 신도 교육 활성화

순례프로그램 개발

및 배경	• 일반대중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수행프로그램으로 순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반인들을 자연스럽게 사찰로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 • 순례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교구별 순례코스를 더욱더 알려내고 이를 계기로 수행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사업	• 순례코스 개발 - 불기2566(2022)년에는 본사 4곳, 말사 4곳 등 8개 사찰의 순례코스를 개발하고, 불기2567(2023)년부터 불기2569(2025)까지 매년 본사 6곳, 말사 6곳 등 12개 사찰의 순례코스 개발. • 순례코스 통합정보 구축 - 5개년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24개 교구본사와 말사 총 48개의 순례코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통합하여 한국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할 예정.
성과 목표	•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순례 리플렛 개발 • 전국 순례길 연결코스 개발

신행 중심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배경	• 몇 년간 감염병의 영향으로 대면활동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의 사회성, 관계성, 정서 돌봄을 위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 특히 사찰 법회와 각종 활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사찰의 활동재개를 위한 종단의 프로그램 지원 요구가 있음. • 불교 4대 명절 신행 캠페인을 통해 신행 생활화 도모
주요 사업	• ‘마음등불’ 사업 심화 - 종단의 인성교육개발위원회 인증을 받은 인성계발 프로그램 수행 • 온라인 청소년 인성계발 프로그램 시행 -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 포교현장에 보급 • 명상포교 프로그램 구축 및 시행 • 불교 4대 명절(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 부처님오신날) 콘텐츠 및 소책자 제작 -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소책자 등
성과 목표	•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30곳 시행 • 온라인 인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불교 4대 명절 소책자 보급을 통한 신행 생활 일상화 • 5대 수행법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

포교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및 배경	• 요구에 맞고 포교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포교콘텐츠 개발 • 뉴미디어 매체 콘텐츠 강화 필요 • 불교 크리에이터 등 인적 자원 연계 필요
주요 사업	• , 수행법, 사찰 기본 예절 등을 뉴미디어 콘텐츠로 매체 전환 - 포교원 공식 SNS채널 관리 (주 1회 콘텐츠 업로드) - 뉴미디어 콘텐츠 홍보 강화 • 불교크리에이터 발굴 및 인적 자원 확대 및 연계 - 작가 템플스테이 시행 - 불교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 뉴미디어 모범사례 발굴 및 활용 매뉴얼 제공
성과 목표	• 포교원 공식 SNS채널 활성화 • 기본에 충실한 유튜브 영상물 제작 • 뉴미디어 관련 인적 데이터 구축 • 뉴미디어 매뉴얼 제작

모바일 신행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및 배경	• 신도증에서 모바일 신도증으로 전환 •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 등의 접근 확대가 전 세대에 걸쳐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변화한 시대에 맞는 신도등록 개선 및 모바일 신도증, 순례, 사찰 신행 모바일 개발
주요 사업	• 신도증 개발 계획 확정, 업체 공모, 프로그램 개발 • 사찰 신행 모바일 앱(사찰앱, 중단앱) 개발 로드맵 마련 • 모바일 신도증을 바탕으로 한 확장 및 인앱 개발
성과 목표	• 모바일 신도증 개발을 통해 신도등록 인식 개선 • 모바일 신도증을 바탕으로 신도 관계망 구축 • 향후 사찰 신행 모바일 앱 및 확장 앱 연동 • 모바일 신도증 사용 확대

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

및 배경	• 포교단체들이 사찰과 함께 포교할 수 있도록 불교계 인식을 제고시키고 포교자격직의 활동영역과 내용 제시 • 소통을 통해 포교단체와 사찰이 함께 포교할 수 있는 연계고리 마련 • 여성불자 조직화를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여성불자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포교활성화
주요 사업	• 및 포교사의 지역 및 사찰 연계 강화 - 포교원과 포교사단 실무협의 진행 (팀단위 활동 분석) - 포교사단 지역단 임원 및 지도법사스님 간담회 개최(신행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출신 불교대학과 재적사찰에서의 포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포교사단 지역단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 포교사단 정관 개정 • 포교사 배출 제도 변경(일반, 전문, 국제) - 포교사 고시 전면 검토 - 포교사 배출 제도 개선 TFT 구성(~2022.6) - 포교사 관련 중령 개정(~2022.12) - 변경된 방식으로 포교사 배출(2023~) • 포교단체 특성을 살려 사찰 법회 지원 -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 중심으로 사찰법회지원단 구성 - 법회에 필요한 인력 연계 및 자료 제공 • 여성포교단체 설립 및 지원 -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한 설립 - 출범식 및 사무국 안정화
성과 목표	• 포교사 제도 개선 • 중령 개정(일반포교사, 국제포교사, 전문포교사) • 포교자격직 및 포교단체 사찰 연계 제도화 • 사찰 법회 지원 상설화 • 여성포교단체 설립

전법단 강화 및 활동 영역 확대

및 배경	• 침체된 분야별 법회 및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활동현장에 맞게 조직을 세분화하고 전법단 지도법사 관리 체계화
주요 사업	• 전법단 출범지원 및 영역 내 분야별 세분화 - 직능별 분야 세분화 - 연예, 문화 등 신규 전법단 출범 • 전법단별 활동 지도법사 관리 및 지원 강화 - 지도법사 인력 데이터 구축 - 지도법사 활동 특례 제도화(중법 개정) - 지도법사 발굴을 통한 조직 확대 • 전법단 전문성 강화 - 전법단 운영위원회 회의 및 연수 등 개최 - 포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법단별 전략과제 수립
성과 목표	• 전법단 회의 및 연수 개최(년 1회) • 분야별 전법단의 포교사업 지원 강화 • 전법단별 지도법사 데이터 구축 및 지원 가능한 중법개정 • 현장 포교사업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법사 발굴(연수교육 지원)

전법중심도량 활성화

및 배경	• 2011 「대한불교조계종전법중심도량은영및관리에관한령」제정 공포되어, 전법도량과 어린이·청소년포교중심도량이 전법중심도량으로 전환지정 • 전법중심도량을 거점화하며 포교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확대 필요 • 종단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함
주요 사업	• 제도 정비 - 주지인사고과제도 시행을 위한 중법개정 • 전법중심도량과 포교단체와의 연계 - 인적, 물적 네트워크 마련 및 활동 강화 • 각 지역별 포교를 위한 균형적인 전법중심도량의 확충 - 미지정 교구 전략적 지정 - 전법중심도량 지원 강화(포교원 생산 자료 우선 제공) - 포교정책 시범운영지원(프로그램 등) • 전법중심도량 인력 네트워크 지원 - 법회 지도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개발 및 연수진행 - 지도자 사찰 연계 및 관리
성과 목표	• 교구별 전법중심도량 지정(현재 62곳 → 108곳으로 확대) (연 10개 이상 확대 지정, ~2025년) • 중법 개정을 통한 전법중심도량 주지 활동 사찰 주지 인사고과 반영 • 법회활용 콘텐츠 제작 및 배포(년 2가지 이상의 콘텐츠 제작) • 우수사찰 사례 홍보 • 포교원 제작 콘텐츠를 전법중심도량에 우선적으로 제공

포교원력 결집대회 개최

및 배경	• 19로 인한 사회적 침체 및 위축감 해소 • 포교원력을 세운 각계·각층 신도 및 포교신도단체, 포교자격자를 중심으로 결집의 장 마련 필요 • 전국적 결집행사를 통한 불자들의 자긍심 증대
주요 사업	• 사찰 권기 순례 특별 신행 프로그램 - 년 1회 모든 포교사가 참가하여 포교사단 포교신행 원력 결집 - 포교신행 원력 결집과 단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 및 지역내 사찰 연계를 위해 지역 내 권기 순례를 통한 신행중심 활동 필요 - 2022년은 “서울 도심사찰 순례길 봉은사-조계사-도선사를 걷다.”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범어사-통도사, 동화사-직지사, 마곡사-수덕사 또는 마곡사-법주사 등 코스 개발 후 권기 순례 • 포교 원력 결집 대회 개최 - 포교자격직 및 포교 인력을 결집하여 신심을 다지고 포교원력을 나누는 장 마련 - 전국 또는 지역별 포교원력결집대회 시행
성과 목표	• 포교신행 원력 결집 • 순례프로그램을 통한 단체와 사찰 연계 강화 • 사찰 신행·포교 활동 영역 확대 • 코로나 상황 극복을 통한 불자들의 성취감 구축

현장 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및 배경	• , 사회분야 등 각 분야에 맞는 포교전략 마련 • 포교 정책 실현을 위한 포교기금 확대 필요. • 포교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사찰 및 포교단체들과 공감대형성 필요 •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전법 및 지역포교활성화 의제 도출 • 포교신도단체와 교구본사를 연계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전법역량 강화
주요 사업	• 포교기금 조성 및 운영 - 포교기금 마련 및 기금사업 추진 • 포교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포교위원회, 신도연구위원회 정기 회의 • 포교전략회의 개최 - 포교원,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종회의원, 포교신도단체 • 지역별 간담회 개최 - 2022년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 - 지역별 전법중심도량·포교·신도단체 현황파악 및 교구본사 연계 - SNS를 활용한 교구본사·포교신도단체 소통 창구 마련(화상회의, 줌 활용)
성과 목표	• 포교전략회의 연1회 개최(~2025년) • 포교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와 토론을 통해 도출하여, 관련 중·법령 논의. • 포교신도단체 회의 연4회 개최(~2025년) - 사찰과 각종 포교단체, 신도단체 등 포교 관련 인력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공유와 현안 대응 및 지역포교 활성화의 계기 마련 • 전국 지역간담회 3회 이상 개최(~2025년)

신도 조직 및 신도 교육 활성화

및 배경	• 극복하는 신도들의 포교역량 강화 • 신도조직 실무책임 단위의 리더십 함양 및 의식제고를 통해 소속감 고취 • 처음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에게 대한 안내 교육 • 사찰 신도로 안착할 수 있는 재적사찰에 대한 교육 • 불자 및 사찰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포교자료 제공
주요 사업	• 소통 강화 - 신도조직 4개 지역 권역별 개최 및 분기별 간담회 시행 - 신도회의 교구별 활성화 사례, 발전방향 • 신도조직 실무자 연수 - 직무연수, 포교 콘텐츠 생산 - 실무자의 고충나눔 프로그램, 상담·명상과 수행 프로그램 -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아이템 구축 • 새신도 안내교육 자료(교재) 및 운영 매뉴얼 배포 - 사찰예절, 사찰의 구조, 법회와 기도, 불자가 되는 길 - 불교와 사찰, 법회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 - 운영 매뉴얼 : 새신도 맞이하기, 효과적인 교육운영 방법, 교육 이후 우리 절 신도만들기 등 상시 활용하는 매뉴얼 • 신도 기본교육 수행법 강의지침서 개발 - 5대 수행법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강의지침서와 강의용 PPT 개발 • 신도 전문교육 강의지침서 개발 - 교리, 역사, 수행, 보살행 등을 통합한 커리큘럼에 의한 강의지침서와 강의용 PPT 개발 • 포교신도단체 교육 강화 - 포교신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경제, 문화, 소통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성과 목표	• 신행 중심의 신도교육체계 개편 • 교구신도회 활성화 및 결속강화, 신도회 비전 구축 • 코로나 이후의 교구 사업의 방향 수립 • 포교핵심인력,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종단의 조직정체성 공유 • 재적사찰 새신도의 안정적 정착 • 체계적인 매뉴얼과 인적 자원 활용으로 매주, 매월, 매분기 새신도 안내교육 시행 정착

2566(2022)년 주요 일정

주요 일정

2월

- 중양신도회 대의원 정기총회(2.25)
- 포교사 신행결집 순례(2.27)
- 제1차 순례길 개발

3월

- 전법단 대표지도법사 임명 및 회의
- 제6기 포교원위원회 임명 및 회의
- 포교사단 창립 22주년 기념법회(3.13)
- 중양신도회 제27대 2차 대의원 총회
- 대불련 새내기 포교

4월

- 일반 및 국제 포교사 고시(4.9)
- 포교여성단체 출범식
- 제2차 순례길 개발

5월

- 불교 크리에이터 3기 발굴
- 전국 만해 백일장

6월

- 작가 템플스테이(1차)
- 포교정책연찬회(1차)

주요 일정

7월

- 포교신도단체 결집대회
- 제3차 순례길 개발

8월

- 불교대학 실무자 연수

9월

- 작가 템플스테이(2,3차)
- 포교사 수계법회

10월

-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
- 제4차 순례길 개발
- 불교대학 학장회의

11월

- 포교정책연찬회(2차)

12월

-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수여식
- 제34회 포교대상 시상식
- 포교,신도단체 송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www.buddhism.or.kr

첨부) 포교원 정책 기초 및 과제와 포교사단 관련 검토 표 - 주제별 정리

3대 기초	10대 과제	10대 과제 주요 내용	검토 내용	비고
신행 중심 포교	순례프로그램 개발	■ 사찰 순례코스 개발 및 통합정보 구축	■ 서울·인천경기, 경남, 제주에서 실시 함	
	신행중심 포교프로그램 개발	■ 어청인성계발, 명상포교 프로그램, 4대 명절 콘텐츠 제작	■ 포교지평은 콘텐츠 생산능력과 소비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취지로 포교사단 사업 방향과 일치	
	포교콘텐츠 개발 및 관리	■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강화 불교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소통 하는 전법 지원	모바일 신행시스템 개발 및 보급	■ 모바일 신도증 활용 사업		
	사찰과 함께하는 포교조직으로 전환	■ 포교사단 및 포교사의 지역 및 사찰 연계 강화 - 포교원과 포교사단 팀단위 활동 분석 실무협의 - 지역단 신행활동 강화 방안 마련 - 출신 불교대학 및 재적사찰 포교활동 강화방안 - 지역단내 팀 재편성 및 교구단위 재배치 - 포교사단 정관 개정 ■ 포교사 배출제도 변경 - 포교사 고시 전면 검토 - 2022년 12월 내 포교사 종령 개정 - 2023년 변경된 방식으로 포교사 배출 ■ 포교단체 특성을 살려 사찰법회 지원 - 어청 포교단체 중심으로 사찰법회지원단 구성	■ 지역단의 사찰 연계 강화 수준이 신행활동 강화를 위한 팀의 재편성과 교구단위로 재배치 할 시 - 현재 포교사 및 포교사단 종령 수준 ▶ 포교원 직할조직 개념 상실 ▶ 사찰 신행 단체로 위치 변경 ▶ 신행단체화 ▶ 포교사단 조직 소멸 예상 - 포교원 직할 관리 상실 ▶ 포교사단 지역단 독자성 상실 ▶ 걷기 순례 등 종단 업무 지원 불가능 예상 ■ 포교사 고시를 폐지 할 시 - 공인성과 포교원 직속 개념 상실 ▶	■ 교구본사 중심은 포교원 직할 개념과 충돌 상황 검토 ■ 교구와 불교대학 중심은 사찰 간의 경쟁 유발 원인 제공 ■ 교구본사의 지리적 위치와 포교사 주거지 역 상이 문제 검토 ■ 전문포교사 강화 방안은 포교사 전문화 방향과 상반되며

		- 법회에 필요한 인력 연계 및 자료 제공 ■ 여성 포교단체 설립 및 지원	자긍심과 신도와 차이 상실 ▶ 포교사 자격 포기 및 붕괴 예상 - 포교사의 하향평준화 발생 ▶ 사찰 내 중간자 역할 상실(새신도 교육, 사찰 법회 지원 등 불가) - 업무 진행 불가 ■ 사찰조직으로 개편하고 포교사 고시 폐지 시 ▶ 독자성 상실로 포교사단 조직 붕괴	포교사와 갈등 발생 ■ 불교대학 입학생 특성 변화와 포교사 선발 필터링 과정 미흡에 따른 부작용 검토
	전법단 강화 및 활동영역 확대	■ 신규 전법단 출범지원 및 영역 내 분야별세분화 - 직능별 분야 세분화 - 연예, 문화 등 신규 전법단 출범 ■ 전법단별 활동 지도법사 관리 및 지원 강화 - 지도법사 활동 특례 제도화(종법 개정) - 지도법사 발굴을 통한 조직 확대 ■ 전법단 전문성 강화 - 전법단 운영위원회 회의 및 연수 등 개최 - 포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법단별 전략과제 수립	■ 전법단의 분야별 세분화 방향 - 중앙중심 지도법사 구성에 따른 한계 - 출가자 급감과 지도법사 수급의 한계 ■ 전법단 활동과 포교사단 계층포교 포교활동 팀 간의 중복에 대한 해석 - 장기적으로 포교사단의 계층포교팀 활동을 전법단으로 이관 예상 - 장기적으로 포교사단은 사찰 내의 신행조직으로 편재로 예상	■ 전법단 출범 역사성 검토 ▶ 포교사단 계층포교 활성화에 따른 종단 대응 ■ 전법단 지도법사 수급난항 ▶ 출가자 절벽시대 수급 난항 ■ 전법단 재원 및 활동인력 ▶ 종단지원금 한계와 실무인력난
	전법중심도량 활성화	■ 전법중심도량 거점화로 지역 포교 활성화 - 교구별 전법중심도량 지정 62곳 연10개 이상 확대	■ 전법중심도량 사찰 규모와 지역 내 모든 계층포교 진행 가능 여부 - 전문성, 인력, 재정 확보 가능 여부	■ 신행=포교 개념에서 전법도량과 타 사찰, 사찰 간의 포교 협력 관계 가능 여부 검토

포교 역량 전문 화	포교원력 결집대회 개최	■ 포교사단 사찰 걷기 순례 특별신행 프로그램 ■ 포교자격직,포교인력의 포교 원력 결집대회 개최	■ 포교사단 지역단별 진행 ■ 포교원력결집대회 ▶ 포교리더스포럼	
	현장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 포교원, 중앙총무기관, 교구본사, 총회의원, 포교신도단체와 함께 포교 전략회의, 신도단체 회의, 지역별 간담회 개최	■ 교구본사 중심의 포교 거점화 전략 - 본사 위치 ▶ 전국 적용가능 여부 ■ 계층포교정책 실현 및 일관성 유지 여부 ▶ 사찰 신도 관리중심 활동과 계층포교 특성 간의 조화 가능 여부	■ 교구와 사찰, 사찰 간에 신도, 포교자 공유 가능여부 검토 ■ 포교사단 oo지역단 소멸 후 대체 신행 및 포교 조직 여부 검토
	신도조직 및 신도교육 활성화	■ 신도조직 소통강화 및 실무자 연수 ■ 새신도 안내교육 자료 및 운영 매뉴얼 배포 ■ 신도 기본교육 수행법 강의지침서 개발 ■ 신도 전문교육 강의지침서 개발 ■ 포교신도단체 교육 강화	■ 새신도 교육과 사찰거점 지역 포교 활동을 포교사가 하기 위해서는? - 1인1전문분야 전법활동가 요구 ▶ 포교사 재교육 전폭 지원 필요 ▶ 새신도, 지역포교 가능 ▶ 그러나 총책 은 포교사 재교육 내용 없음	■ 새신도 교육사업 실현 여부 ▶ 입도 신도 숫자 검토 ▶ 비현실적 ■ 새신도 교육과 불교대학 관계 검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홈페이지 : www.pogyosadan.org e-mail : pogyosadan@hanmail.net

소 속	연 락 처	팩 스	주 소	이메일
포 교 사 단	02-927-0588	02-927-5390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pogyosadan@hanmail.net
서울지역단	02-927-0589	02-927-5390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pogyo0589@hanmail.net
부산지역단	051-633-3011	051-633-3012	47257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pogyo3011@hanmail.net
대구지역단	053-623-0108	053-745-4109	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51길 11 대구불교회관 2층	pogyo4108@hanmail.net
대전충남지역단	042-255-5055	042-255-5055	34508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66 3층	pogyodjcn@daum.net
광주전남지역단	062-375-0107	062-383-5581	6196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무각사 내 불교회관	pogyo.0107@hanmail.net
전북지역단	063-252-4940	063-252-4941	5493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2층	pogyosadan4940@hanmail.net
강원지역단	033-646-0588	033-646-0588	25527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8 3층 (교동 982-30)	pogyo2986@hanmail.net
충북지역단	043-265-1080	043-266-1080	2853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북로 121 2층 (우암동 333-4)	pogyo108@hanmail.net
인천경기지역단	032-435-1080	032-435-1086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3번길 56 인천불교회관 2층	inckpogyo@hanmail.net
경남지역단	055-262-1180	055-263-1180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 14층 1401호	knppogyo1180@hanmail.net
울산지역단	052-275-8484	052-275-8485	44657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45번길 4, 2층	usp8484@hanmail.net
제주지역단	064-732-1080	064-732-1080	63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84 관음사 주차장 내	pogyojj91@daum.net
경북지역단	053-813-0108	053-813-0109	(우)38486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4 상가 2층	kbpogyo@daum.net
LA지역단			4279W 3rd St. Los Angles CA 90020 USA LA불교대학	-
(사)좋은인연	02-926-4062	02-927-5390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good6@hanmail.net
무소유실천운동본부	070-8680-9287	02-927-5390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musoyou3@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02-927-0586	02-927-5390	046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1층	jogyebuddha@gmail.com

